

# 도내 차량털이 하루 1건 이상 발생

### 현재 228명 검거 지난해 대비 56% 급증

전북지역에서도 하루 한 건 이상 차량털이 범죄가 발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차량털이 범죄는 지난 2010년 399건에서 지난해는 527건으로 5년 사이 75%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차량털이 범죄는 지난 2014년 62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소폭 감소를 보였다.

특히 지난 16일 전주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1년여 동안 피해 주차된 차량 내부의 물건을 33회에 걸쳐 훔쳐 총

1800여만원 상당의 노트북, 휴대폰 등을 훔쳐온 상습차량털이범이 검거되기도 했다.

차량털이범 검거는 2010년 247건에서 2012년 136건까지 줄었으나, 2013년에는 2배가 증가한 272건, 2014년에는 487건까지 늘어났다.

이 같은 도내 차량털이 범죄가 증가 상태에 대해 경찰은 "차량털이범 검거의 경우 범죄 발생일과 검거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둘의 연관관계를 찾기보다 범죄 발생 자체가 꾸준히 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범

죄 발생 자체가 증가하는 이유는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라 범죄대상이 많아진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북지역 전체 자동차등록 수는 2011년 약 74만대에서 2016년 3월 기준으로 약 84만대까지 증가했다.

올해 5월 22일 기준으로 차량털이범은 228명이 검거됐고, 범죄 발생 건수는 275건으로 차량털이범 검거는 전년 대비 56%, 차량털이범 범죄 발생은 48% 수준으로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차량털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군산에서는 지난 3월부터 5월 22일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만 노려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하다가 차량의 열쇠가 발견되면 차량의 시동

을 걸어 운전해 달아나는 등 차량절도 5회, 차량털이 11회를 저지른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위해 차량 내부에 훔칠만한 현금이나 고가의 소지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며 "특히 차량 내부에 차기를 두고 내리면 차량절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차량털이 범치는 주로 차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겨냥해 이뤄지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문을 잠그면 백미러가 접히게 돼 있는데 백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를 노리는 범죄도 많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진수 기자

## 2017 FIFA U-20월드컵 대비 전주시, 시민주도 화분거리 조성 캠페인 전개

전주시가 오는 2017년 FIFA U-20월드컵을 대비해 시민주도의 환경정비 운동을 추진,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에 녹색 숨결을 불어넣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하시설물 매립과 사거리 등 구조적인 한계로 화분조성이 어려운 거리에 시민 스스로 1~2개의 화분을 상가 앞에 가꾸어 거리를 꾸밀 수 있도록 하는 '시민주도의 화분거리 조성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한옥마을 등 한정된 지역에만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시는 거리별 생태도시 명소화

사업을 추진, 관광객을 분산시켜 골목상권까지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구청에서는 이달부터 각 동 자생단체 회원들과 상인회 등과 함께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완산소방서 앞 교차로에서 거마로사거리로 이르는 거마평로, 상인회가 조직돼 활동중인 전북대 구정문 주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각 동 자생단체 회원 및 상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가로수 밑 꽃 심기와 가게 앞 화분 가꾸기, 산책로 화분 가꾸기 등을 다양한 시민참여 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26일 전북평화외인권연대와 민주노동총연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북 시민사회단체 “경찰 통신자료 무단수집 안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전북 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북평화외인권연대와 민주노동총연북본부는 이날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 번호 수를 기준으로 467만여건, 문서의 경우 56만여건이며, 올해는 총 1057만 건에 달해 국민 5명중 1명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제공됐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 "전북지역에서도 종교인, 정당인, 기자, 노동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 수사기관에서 무차별 통신자료 수집을 했다"며 "실제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박모(30)씨는 "통신사에 개인정보조치를 신청하고 나서야 지난 2월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제주도에는 가족여행과

수학여행을 다녀온 게 전부인데 무슨 이유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통신자료를 무단수집 당한 전북의 11명의 노동자와 시민을 포함한 500여명의 청구인은 지난 18일 국가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수집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한 정보·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행정소송을 내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는 자료제공요청사유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안진수 기자

## 전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전주시가 아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26일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권리 및 의견존중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강해숙)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교육은 아동과 권리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권리 실천 방법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강사로 초청된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장은 아동을 직접 보육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보호·교육 현장에서의 아동 권리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권리 및 의견존중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비치

결혼이주여성 등 전주시 거주 외국인들의 행정민원업무 이용이 편리해진다.

전주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민원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주요 민원 서식 36종을 4개 외국어로 번역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전주시다문화센터와 동주민센터 등 37개 공공기관에 비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전주시

주민등록인구 65만3000명의 0.9%인 6000여명에 달한다.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행정업무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언어의 해석본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에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주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서식들이 법정 민원서식의 형식으로 외국어로 번역돼 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급수공사비용 납부 가상계좌 결제 서비스 도입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 가상계좌로 급수공사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 서비스를 개설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는 오는 6월부터 수돗물 공급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 시 '전북은행 가상계좌'를 도입해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돕는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시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급수공사신청 후 급수공사비 고지서를 시에서 발부받아 은행에 직접 방문 납부하고, 은행에 공사비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시스템을 정비, 오는 6월부터는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계좌는 은행에 가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간편하게 입금이나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임시로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상 계좌로, 신청인별로 입금자와 입금액 등 정보를 미리 설정하고 입금확인번호를 각각 부여해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여 실시간으로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가상계좌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바뀌지 않는 고유의 번호이므로 납부할 금액만 알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 영업을 마감하는 오후 4시가 지나도 밤 11시 30분까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주시 연간 급수공사 처리건수는 약 3000여건으로, 시는 고지서 없이도 급수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수용가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이기 위해 '급수공사비용 문자알림'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